



항전 승리 80 주년 기념행사 10 가지 배치 공포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6월 24일 오전 소식공개회를 열고 중앙선전부 일 상사업을 관리하는 부부장 호화평 등이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 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행사의 총체적 배치를 소개하게 했다.

첫째, 9월 3일 오전 중공중앙,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정협,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북경 천안문광장에서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돐 기념대회를 성대하게 거행하는데 여기에는 부대 사열도 포함된다.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한다. 9월 3일 점심에는 북경에서 초대회를 열어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발표하게 된다. 9월 3일 저녁에는 북경에서 문예야회가 개최되는데 당과 국가 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둘째,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사

위원회의 명의로 간재한 항전 로전사, 로동지, 항전장령 또는 그 유족에게 ‘중국인민항일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메달을 수여한다. 각 지역, 각 관련 부문은 국내에 간재한 항전 로전사, 로동지, 항전장령 또는 그 유족, 항전 련사 친족에 대한 위문활동을 조직, 전개하게 된다.

셋째, 7월 7일, 중공중앙,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명의로 중국인민항 일전쟁기념관에서 전 민족 항일전쟁 발발 88 주년을 기념하는 의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민족해방과 세계평화를 위하여—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반 파쇼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 주제전 사회 개막식을 거행한다.

넷째, 9월 3일을 전후하여 중국인 민항일전쟁 및 세계반파쇼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을 둘러싸고 항항, 오펜, 대만 동포, 해외 관련 인사 좌담회를

열고 국제학술연구토론회를 거행한다.

다섯째, 9월 18일, 료녕성 당위와 정부의 명의로 심양시 ‘9.18’ 역사박물관에서 ‘9.18’ 잊지 말기 경종 의식을 거행한다.

여섯째, 10월 25일을 전후하여 대만 광복 80돐 기념대회를 거행한다. 해외 교포들이 현지에서 관련 기념행사를 조직하는 것을 지지한다.

일곱째, 12월 13일, 중공중앙, 국무원의 명의로 남경시 중국적략 일본군 남경대학살 조난동포 기념관에서 남경대학살 희생자 국가추모식을 거행한다.

여덟째, 제 4차 국가급 항전기념시설, 유적 명부와 저명한 항일영렬, 영웅군체의 명부를 공포한다. 항전기념 시설과 항전 유적지, 유물을 보수하고 보호하며 항전 주제 전시회의 정품을 소개한다.

아홉째, 중국인민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쇼전쟁 승리 80 주년 기념을 둘러싸고 일련의 문예작품과 주제출판물을 창작, 출시한다. 학술연구를 강화하여 일련의 중점 과제를 확립한다. 이의 기념주화와 기념우표도 발행하게 된다.

열째, 각 지역, 각 부문은 실제 조직과 결부하여 대중성 기념행사를 전개한다. 항항, 오펜에서도 일련의 기념행사를 조직 전개할 것이다.

당중앙은 제반 기념행사는 중앙 8항 규정 및 그 실시세칙 정신을 엄격히 실시하고 〈당정기관 절약 엄격 리행, 랑비 반대 조례〉를 엄격히 집행하며 형식주의를 방지하고 겉치레와 랑비를 힘써 경계하여 성대하고 열렬하면서도 실무적이고 간소함을 확보해야 한다고 명확히 요구했다.

/인민일보

장백산공항 새 터미널 정식 운영



6월 22일, 장백산공항의 새 터미널이 정식으로 운영을 개시했다. 새로운 터미널은 스마트 시설과 지역 특색을 융합하여 장백산공항이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 새 터미널의 건축면적은 2만 731평방미터로 기존 터미널에 비해 면적이 크게 증가하고 공간 배치도 더욱 합리적이다. 터미널내에는 16개의 체크인 카운터와 5갈래의 보안검색통로가 마련되어 승객의 절차 처리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대기시간을 줄였다. 동시에 4개의 보딩게이트(登机桥)와 6개의 탑승구가 설치되어 승객들의 탑승 과정이 더욱 편리하고 쾌적해졌다.

새 터미널은 스마트 건설 측면에서 매우 두드러진다. 첨단 셀프 체크인 및 셀프 수하물 위탁 장비를 도입하여 승객들은 신속하게 체크인 및 수하물 위탁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바

수동 조작 단계를 줄이고 출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대기구역에는 많은 스마트 충전시설과 고속 무선 네트워크가 갖춰져 있어 대기중 승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새 터미널의 디자인은 장백산의 지역 문화 특성을 완전히 반영, 건물 외관부터 내부 장식까지 장백산의 자연경관과 민속문화 요소를 볼 수 있으며 승객들은 여행중에 독특한 지역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새 터미널의 운영으로 장백산공항의 종합 보장 능력과 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장백산지역 관광 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및 외계의 연결을 더욱 강화할 전망이다.

한편, 장백산공항 새 터미널의 정식 운영과 함께 원 공항은 폐쇄된다. 사용자들은 전화 0439-6259111로 새 공항 터미널 리용 관련 자료를 진행할 수 있다.

/장백산발보

눈부신 성장으로 힘차게 발전하는 연변

1분기 지역총생산액 244.73 억원으로 6.9% 성장하며 경제 블랙호스로

연변 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가?

‘하나의 IP가 하나의 산업사슬을 활성화’한 문화관광 ‘신예’(新秀)이고 ‘프로젝트 위주’와 정책 지원의 두 바퀴로 굴러가는 경제 ‘블랙호스’(黑马)이며 더우기 우리 성이 고수준 개방을 위해 내놓은 ‘왕패’이다.

올해 1분기에 연변주는 전 주 지역총생산액 244.73 억원을 실현, 전년 동기 대비 6.9% 성장하여 전 성 1위의 눈부신 성적표를 내면서 힘차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북의 작은 도시’에서 ‘전세계와 소통’

국제열차의 기적소리가 울려 퍼질 때, 훈춘통상구의 화물경사차는 이미 분주한 모습이다. 로씨야, 일본, 한국 등 나라의 ‘훌륭한 상품’들이 여기서 ‘글로벌 분배’를 마치고 중국-유럽 화물열차를 통해 유럽으로 발송된다.

멀지 않은 곳에 자리잡은 훈춘동북 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단지에서는 전자상거래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는데 전세계에서 수입된 좋은 상품들이 가득하며 생방송 판매량은 계속해서 상승한다.

산업단지내에서는 로씨야에서 수입한 키크랩과 연변김치가 한무대에서 ‘경쟁’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수백개의 대외무역 기업들이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훈춘보세물류분배센터에 의탁하여 ‘다국전자상거래 + 변강 창고’ 모델을 혁신적으로 운영하고 1210보세다국무 전자상거래 업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48시간 이내에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있다.

“예전에는 대외무역을 하려면 남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집앞에서도 통관이 가능해져 작은 장소에서 큰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에서 ‘90 후’ 창업자 왕정은 휴대폰 속의 주문을 보여주며 감개무량해했다.

이러한 편리함의 배경에는 최근 통로 건설에서 이룩한 연변의 돌파적인 진전이 들어있다—

국내 최초로 차이노우(菜鸟) 대로씨야 대응량 전용 라인 업무를 개통했는데 로씨야를 대상으로 31 킬로그램 이하 화물의 빠른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간과 비용을 이전보다 절반 이상 절감, 현재 중국이 로씨야를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통신류 및 소비류 전자제품의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



▲ 연길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아름다운 ‘조선족 공주’로 ‘변신’해 즐거운 관광의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외지 관광객들 / 김파기자

한 채널로 급부상했다. 동북지역 최초로 다국전자상거래 소포 국제통로 운송 업무를 개통했는데 훈춘에서 모스크바까지 운송 시간을 3~4일 단축하여 훈춘-올라지보스포크-모스크바 ‘직통차’를 실현했다. 전국 최초로 중로 철도우편 업무를 개통했는데 우편과 ‘9610’ 모드로 통관 수속을 처리하는 전자상거래 소매 수출입 상품 업무의 융합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TIR 국제 직통차와 올라지보스포크 항공로선과 연결하여 훈춘 다국전자상거래 화물의 육로, 철도, 항공 복합 운송 체계를 구축했다. 훈춘에서 로씨야 전역까지 우편 소요 시간을 20일 이상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하여 산업의 선순환을 촉진했다.

훈춘통상구에서 100 킬로미터 떨어진 RCEP 연변다국수출입센터 역시 활기가 흘러넘친다.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오프라인 체험 + 온라인 연계’ 혁신 모델은 전 주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액을 40% 성장률로 12 억 6,000

만족과 기쁨이 어려웠었다. 민속원 내에는 그녀와 같은 ‘조선족 공주’들이 많았다.

“5.1”절 기간 민속원의 최대 일일 관광객수는 5 만명을 돌파해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 마케팅 및 투자유치 총괄 장진명은 북적이는 인파를 가리키며 소개했다.

연변의 활기는 민속원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동정려행(同程旅行)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달 연변의 호텔 예약 열기는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해 전 성 1위를 기록했으며 관광지 예약 열기는 전월 대비 155% 증가했다.

무엇이 연변의 문화관광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활력을 유지하게 하는가? ‘비밀’은 지속적인 경영방식의 혁신 속에 숨어있었다.

문화관광 융합발전의 물결 속에서 연길시는 ‘조선족 공주’ IP의 잠재력을 예리하게 포착하여 핵심으로 삼았으며 무형문화유산 체험을 문화 전파에 융합시켜 민속원을 ‘관광 명소’에서 ‘생동감 있는 박물관’으로 업그레이드했다. 동시에 민속원을 핵심으로 모아산(공룡) 문화관광풍경구 등 주변 자원을 연결하여 ‘관광활영 + 연학’, ‘관광활영 + 음식’ 등 관광제품을 출시했다. ‘공주 패키지’, ‘테마 민박’을 출시하여 주변 상인들의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돈화시 흥성향 중성촌은 과거 기반 시설이 낙후하고 주민 소득이 적은 농촌마을이었는데 이제는 경영방식이 풍부한 조선족 생태마을로 탈바꿈했다. “예전에는 우리 마을에 제대로 된 길도 없었지만 지금은 관광객들이 모두 ‘현실판 무릉도원’이라고 칭찬합니다!” 촌민 리계화의 말이다. 현재 그녀는 남아도는 빈방을 여행사에 임대해 매년 2만여원의 추가 수입을 올리고 있었다.

중국, 조선, 로씨야 3국이 교차하는 독특한 지리적 우세에 힘입어 훈춘시 방천풍경구는 ‘춘유호물’(春有好物) 문화관광 장의 브랜드를 구축하여 중국, 조선, 로씨야 특색을 가진 일련의 문화관광제품, 호랑이 표범 문화관광장의제품, 농산품 등을 개발함으로써 3국 점령지 특색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구축하며 관광객 수량과 수입의 이중 성장을 이루었다.

오늘날의 연변은 ‘변강 특색 + 국제적 표현’으로 관광생태를 재구성하면서 외부에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활력 넘치는 새로운 연변을 보여주고 있다.

▶ 2 면으로

만원까지 돌파하도록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해산물, 중고차 등 품목의 급성장을 이끌었다.

1분기에 연변은 다국전자상거래 무역액 13.1 억원을 실현하면서 47.2% 성장이라는 성적표를 제출했는데 과거 ‘동북의 저지대’는 이제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고지로 모습을 바꾸고 있다.

관광생태 재구성, 개방적이고 다양하며 활력 넘치는 새로운 연변 보여줘

“저는 소박한 메이크업을 좋아해요. 머리 장식도 가장 간단한 걸로 해주세요.” 중국조선족민속원내의 한 관광활영 가게에서 산동 출신 관광객 진나는 화장대 앞에 앉아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여기 직원들은 전문적이고 세심하며 이곳의 진한 민족풍정도 사람들이 매료시키고 있어요. 이번 여행은 정말 보람차요.” 메이크업이 끝나갈 무렵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진나의 눈에

1월—5월 연변 분양주택 판매 증가 속도 전 성 1위

연변주주택및도시농촌건설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연변주의 분양주택 판매 면적은 24만 3,900 평방미터로 성장 속도가 41.6%에 달하며 전 성 1위를 차지했다. 그중 연길시의 분양주택 판매 면적이 16만 200 평방미터로 성장 속도가 91.9%에 달해 전 주 1위를 차지하였다.

올해 5월, 연길시정부는 앞당겨 계획하고 앞심들여 조직하면서 2025년 봄철주택교역회가 새로운 진보와 변화를 보이도록 전력 추진하였다. 상, 주, 시 당위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연길시정부는 1억원을 지출하여 신축 분양주택을 전액으로 구매하는 이들에게 건축면적당 매 평방미터에 500 원 기준에 따라 보조하고 주택공적금과 상업대출을 사용하여 새로 건설한 분양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일회성 리자를 보조했다. 조 건에 부합되는 본과, 석사, 박사 학위 인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증가했다. 이 밖에 또 부동산 등록비 인하, 세금환급, 공적금과 상업대출, 가전제품 보조와 장식 보조 등 주택 구매 해빈 정책들도 내놓았다. 이번 주택교역회 정부 보조 강도는 전례 없이 높았는데 보조 한도액이 전 성 1위를 차지하였다.

이번 주택교역회에 포함 24개 기업의 38개 항목이 참가했는데 전시회에 선보인 주택이 도합 5,900 여채로 수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은 보편적으로 매 한채당 5만원의 리윤을 양도하였고 개별적인 기업의 리윤 양도폭은 평방미터당 1,800 원에 달하였다. 주택교역회에서는 또 동북 3성에서 가장 먼저 5세대 부동산, 즉 건강양생형(康养型) 부동산을 내놓았다.

이런 여러가지 조치들은 연길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고 시장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주택 소비의 방출을 크게 촉진하였다.

/연길시당위 선전부

길림대학 최신 돌파! 지능레이자제초기 개발



길림대학에 따르면 길림대학팀이 공주령유기체소과학기술소원(小院)과 연합하여 개발한 지능레이자제초기가 원가를 100 만원 이내로 성공적으로 통제하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 가격대를 실현할 수 있는 지능레이자제초설비로 되었다. 이는 농약

을 사용하지 않는 물리제초 기술의 보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제초기는 농업생산에서 농약을 너무 많이 사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적으로 로선을 계획하여 고효율적으로 제초할 수 있으며 레이자를 리용하여 정확히 잡초를 ‘태우’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기계제초에 비해 어린 싹을 보호함이 훨씬 우수하다. 지능레이자제초기는 또 좋은 등반능력(20도 비탈을 오를 수 있음)을 갖추고 있으며 밭에서 다른 기계를 만나면 자동적으로 피할 수 있어 작업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비슷한 기능의 레이자제초기 가격은 보편적으로 백만원이 넘는 가운데 원가를 낮추면 더 많은 농장과 농업전업합작사들에서 지능레이자제초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신문넷